

# 21세기 대학평가의 접근방법과 평가요소

정재국 중앙대 물리학과 교수, 기획실장

## 1. 21세기 대학평가를 앞두고

대학교육의 1,000년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전환점을 맞이하여, 한국의 대학은 발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새로운 바람은 대학개혁을 통한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향상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대학봉사의 기능 확대로, 대학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바람이다.

우리 나라에서 대학개혁의 바람이 일게 된 원인은 정보화, 세계화 상황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함께, 대학에 밀어닥치고 있는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정부의 대학별 차등 지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근원에 토대를 두고, 대학개혁은 우수 교원 확보, 학술정보체제의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산학연 연구체제 수립, 교육과정 개편, 교수업적 평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학을 내실화하고 있다. 동시에, 오랜 세월 상아탑으로 아카데미즘의 본산이었던 대학이 이제는 대중에게 개방되고 있으며, 대학이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됨으로써 사회적 공익 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요구받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변화 속에서 모든 대학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여러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대학평가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학평가는 오랜 세월 미국이 선도해오다가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대학간의 자율통제를 위한 기제이다. 일반적으로 대학평가는 대학의 수월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대학간 협동성 진작 그리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유도확대 등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총체적 질 향상을 위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0~1970년대는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부 관리에 의한 대학평가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80년대는 대학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대학 스스로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한국대학교육협회는 대학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90년대에 들어서서 과학적인 대학평가의 모형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하여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가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동시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투자를 집중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는 했지만, 그 동안 대학평가가 우리 나라 대학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대학평가는 안일과 정체에 안

주하고 있던 우리 나라 대학에 자성의 계기를 주었고, 개혁의지에 영향을 주었다. 이제 21세기 대학평가의 과제는 대학평가과정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대학평가가 대학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학평가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그 특성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21세기 대학평가의 접근방법과 평가요소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2. 대학평가의 특성과 중요성

모든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평가대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평가는 본질적으로 평가를 받는 자신에 의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가 되어야 한다. 대학이 다른 기관과 다른 점은 대학은 교육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데 있다. 즉, 대학의 발전은 이 두 가지 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일치된다.

따라서 대학을 바르게 평가한다는 것은 “교육을 얼마나 잘하는가?”, “새로운 가치창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바르게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 대학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며, 끊임없는 검토와 연구가 요구된다. 그것은 교육의 성패 여부를 평가하는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평가준거가 보편 타당하게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의 결과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며, 학습자의 성취도 조사의 경우도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성취도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교육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복합적 효과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가치창조, 즉 연구기능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말 그대로 새로운 가치창조의 능력을 구시대적 가치관에 의하여 평가하는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본질적인 대학평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쉬운 길로 우회함으로써 대학발전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평가는 현재,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대학 스스로 평가한 내용을 사회에 공개해서 사회적 인정을 받아냄으로써 대학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얻어내자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평가인정제가 있다. 이는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정제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대학재정을 지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학 학사와 운영 전반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로서 대교협 평가인정제와 성격이 다르며, 대학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한 교육부의 대학지원 활동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일부 언론사나 임의단체에서 선정한 몇 가지 평가항목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는 것으로 서열 순위까지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언론사의 정책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기에 대학은 피평가자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평가를 놓고 볼 때, 대학평가가 대학 스스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이루어진 평가이든, 대학재정을 지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평가이든, 일부 언론이나 단체에서 몇 가지 항목만을 가지고 실시하는 평가이든, 모든 대학평가는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학평가의 특성이며, 만약 이것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평가도 대학평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평가 결과도 대학의 구체적 발전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평가는 ‘대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평가의 독특한 성격을 찾아볼 수 있으며, ‘대학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대학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대학평가는 각 대학의 발전

을 위한 지구적 노력을 촉진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무성을 높이면서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유도하며,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각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 3. 대학평가에 대한 접근방법과 평가요소 설정

#### 1) 대학평가의 접근방법

우리 나라에서의 본격적 대학평가는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립과 동시에 법정사업으로 시작된 대교협 주관의 학과평가와 대학종합평가라고 할 수 있다. 대학평가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이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이 확립되어 있어 대학 스스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케 한다는 평가목적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점들이 있다. 따라서 21세기 대학평가는 21세기 사회 변화에 대한 안목과 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21세기 대학평가의 접근방법은 어떤 목적의 평가이든 21세기 무한경쟁 세계화 속에서 대학 스스로의 대학발전을 위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학 자체의 의뢰에 의해 이루어져야지, 몇 가지 외형적 가치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평가는 자체평가, 보고서 및 관련자료 검토, 현지방문 평가의 3단계를 정확히 지키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들의 요청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며, 대학평가를 주관할 수 있는 합법적 기관이 사전에 제시한 기준이나 척도에 따라 평가받으려는 대학의 자체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적정 기간 동안에 걸친 자체평가 결과가 보고서로 제출되면 동료집단 내에서 선발된 평가위원들이 먼저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지정된 시기에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

점점하는 현지방문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 후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의 결과가 종합되면,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서 판정을 해야 한다. 21세기의 대학평가는 바로, 이러한 과정이 정확히 지켜짐으로써 실제로 대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둘째, 21세기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평가에 대한 접근이 전문성을 띠어야 한다. 평가작업은 매우 복잡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평가항목과 각 항목별 기준의 개발, 평가영역이나 항목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결정 등 학술적 기술적 능력은 물론, 조직과 운영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을 평가하는 일에는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고도의 지성적 안목이 요청된다.

셋째, 21세기 대학평가의 접근방법은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학마다 제각기 특성이 있고, 규모나 역사, 지리적 여건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평가하는 단일 평가준거는 확립화된 대학교육을 초래하게 되므로, 각 대학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준과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저변확대와 균형적 발전을 위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우수한 대학에 대한 보상적 지원은 물론 그렇지 못한 대학에 대한 조성적 지원도 함께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보상적 지원과, 조성적 지원으로 나누어 시행되도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평가요소 설정

현행의 대학평가인정제 평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된 점은 우선 교육수요자와 공급자 등 대학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집단들에게 시의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성, 둘째, 대학의 현재 교육여건상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현실성, 셋째, 평가기준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같은 성과가 기대되

는 기준이라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함을 뜻하는 적절성, 넷째, 진술한 기준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명료성이었다.

이러한 평가요소 설정의 취지에 따라 1994년부터 실시된 대학평가인정제 5년간의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대학 모두가 '인정'으로 판정받았으나,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크게는 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시간강사에 의한 높은 강의 의존률, 연구실적 저조, 도서관시설 및 장서부족, 시설설비의 노후 및 미흡, 대학원 교육 소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대비한 평가요소의 설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목표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21세기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세기 대학평가 요소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대학의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연구기능 평가에서는 발표논문의 편수보다는 논문내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교육기능 평가에서는 단순한 교수확보율이 아니라, 교수의 질적 수준과 열의도를 평가하도록 심화시켜야 한다.


둘째, 개방화·세계화 시대를 대비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국제교육 프로그램 시행 여부나 외국대학 혹은 외국기관과의 교육 교류 및 공동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외국학생 지원체제, 외국어 교육체제, 외국어전용 강의 실태 등 세계의 우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진국형 평가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의 교육내용이 21세기 사회를 이끌어가기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지에 대한 평가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즉, 대학교육의 내용이 앞으로 도래할 변화하는 사회를 인식하고 사회변화를 예측하여, 사회를 선도하여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적절히 부응

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4. 결 어

대학평가는 현재 세계적인 현상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세계 각국은 다음 세기의 국가경쟁력이 교육에 의해 좌우된다는 전제 아래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사회의 각 분야가 요구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대학의 질 향상을 위한 개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21세기는 과학기술, 즉 지적 창조능력과 연구능력에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는 바, 대학평가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는 평가의 주제나 방법, 도구, 활용 등이 미흡하나 우리의 평가기준이 세계의 대학평가와 어깨를 견줄 만한 수준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학은 외형적 평가기준에 맞추어 연극을 하거나, 평가인정에 안주하지 말고, 각자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특히, 각 대학은 대학평가의 실체를 자세히 이해하고 그 기본적 토대 위에서 자율적으로 21세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대학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자기노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평가는 대학사회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야 하며, 21세기 대학평가는 각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으로써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정재국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송전대 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기획실장을 맡고 있다.